

블루베리 삼목번식기술

김은주 농식품원예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맛과 기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과수

블루베리는 시력강화, 면역시스템 증진, 뇌졸중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과수다.

현재 313ha가 재배되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면적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개원 시 묘목 값이 비싸 농가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므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과 묘목 값 안정화를 위해 효율적인 삼목번식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삼목시기와 삼수조제 방법

블루베리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경 눈이 움직이기 직전에 삼목하는 것이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유리하다 전년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2월~3월에 채취하여 2~3°C 되는 냉장고에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보관하거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그늘진 곳에 묻어 두었다가 삼수로 이용한다. 삼수 기부는 비스

듬히 자르고 꽃눈이 달려있는 가지는 뿌리내림에 좋지 않은 영양을 주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삼수를 자를 때 윗부분은 눈 바로 위에서 눈이 없는 쪽을 향해 약간 경사지도록 자르되 눈 위 3~4mm되는 부위를 자르는데 굽기가 연필두께보다 가늘고 눈 수는 5개 정도로 7~8cm길이가 적당하다.

삼목준비와 삼목 후 관리

삼목상은 길이 50cm, 너비 35cm, 높이 10cm 정도의 물 빠짐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하기가 쉬우며 관리 면에서도 편리하다. 삼목 용토는 pH가 보정되지 않은 피트모스와 굵은 입자의 펄라이트를 7:3의 부피비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발근율이 높고 뿌리생육도 양호하다. 준비된 상자에 삼목 용토를 9cm 깊이로 담고 삼목 당일 오전에 충분히 관수하여 포화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미리 조제한 삼수는 마르지 않도록 물에 적신 거즈나 수건으로 싸서 보관하고, 삼목직전 삼수기부를 발근촉진제인 NAA나 IBA 500ppm에 5초정도 순간 침지한 후 삼목하면 발근이 가능하다.

삼목방법은 삽수의 눈 3개는 용토에 꽂고, 눈 2개는 지상부에 남게 하여 삼목상자(50×35×10cm) 한 개당 삽수 50개를 꽂으면 적당하다. 삼목 후 관리는 공기의 온도가 토양온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가 좋는데 블루베리의 뿌리내림에 적당한 삼목상 온도는 15~25 °C범위이다. 뿌리내림은 삽수가 발아한 후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유리하지만 강한 햇빛은 증산작용을 촉진하여 삽수를 시들게 하므로 빛을 약하게 차광한다.

따라서 삼목상위 1cm 높이에 활죽을 꽂고 30%정도 빛을 차단할 수 있는 흑색 차광망을 설치한다. 삼목 후 30일 정도 지나면 충실한 삽수는 거의 모두 발아되고, 이때부터의 관리가 뿌리내림에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과습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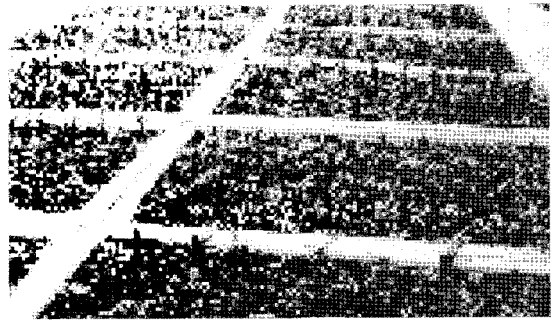
관수에 특히 유의하고 뿌리내리기 직전에는 약간 건조하게 삼목상을 관리한다. 발근이 시작되면 차광망을 거둬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건조에 약하므로 신경을 쓴다.

완전히 뿌리내린 삼목묘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경 보수력이 좋고 배수가 잘되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개별포트에 이식한다. 이식 직후에는 뿌리활착을 위해 바로 시비하지 않고 약1주일 후 질소, 인산, 가리가 함유된 비료를 묽게 타서 20일 간격으로 2~3회 관주한다. 시비는 9월 상순경까지 마치도록 하며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하면 1년생 블루베리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3월호〉



▲ 삼목상



▲ 차광



▲ 묘상



▲ 1년생 묘